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4,883원 인상!
임금 안정성 쟁취!
공민권 행사 보장!

제03호 / '17.4.27(목)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표준생계비까지 한참 멀었다

4차 교섭, 질의응답으로 진행

27일(목) 진행된 4차 지부교섭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의 근거와 병원 진료 조퇴시 임금공제 금지에 대해 질문하며 각 회사별 규모나 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지부는 산별교섭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교섭과 산별교섭 법제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진지한 고민을 주문했다.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

사측은 각 회사별 지급여력이 다른데 임금인상 요구안이 일괄적으로 제출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과 조퇴 사항도 회사별로 근로기준법에 충족하며 운영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자율경영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모링크 사측 교섭위

원은 연봉 1억 받는 대기업, 자동차 부품사 연봉 8,300만원 운운하며 회사별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은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를 73.9%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물론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간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산별교섭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자들은 회사별 차이만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사용자들에게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해결이 어려우니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려면 산별교섭이 법제화되고 힘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4차 교섭 속기록

사 : (대한이연 대표이사) 노사 양측이 처한 입장이나 현실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저같은 경우도 10년 가까이 경험하는 동안 어려웠던 회사 이만큼 발전시킨데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낀다. 경영자로서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주변 정세로 상당한 자금 압박도 예상된다.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간단치 않다. 개인 의견으로는 제도의 개선이나 요구사항이 서로 논의될 때는 그걸 감당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되면 좋겠다. 지부는 계속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어서 힘을 합치면 앞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노 : 노조파괴 때문에 작년에 한 조합원이 죽었다. 안타깝게도 올해 충남에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 노조파괴가 사용자들에게 꼭 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대화로 풀수 있고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노조파괴를 해서 노동자가 더 이상 얼마나 더 죽어야 그런 사태가 끝날지 안타깝다. 대선 토론회 보면 재밌다. 사드 배치가 우리 경제에 절대 도움이 안되는데 사드배치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 오로지 안보장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노사가 그런데서도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드 때문에 중국 압박으로 기업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발전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 중국과 관련 없는 회사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 압박하면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문제다. 이런 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오늘은 질의응답 날이다. 알찬 질문 부탁드립니다. 요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해달라.

사 : 대부분 지회보충교섭이 임금만 있는 곳이 많다. 지부

는 언제쯤 지회로 내릴 수 있는지?

노 : 타결 시점은 7월로 생각하고 있다. 지부요구안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판단할 수 있다. 5~6월 지나면 요구안에 대해 제시하면 그 상황보서 임금안을 논의하겠다.

사 : 조퇴 관한 요구안에 대해 각 사마다 공제 기준이 다르다. 각 사가 실시하고 있는 조퇴 사항이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면 개별기업의 자율경영이 침해된다고 본다.

노 :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을 정하는 최하위 법이다. 단체교섭을 하는 목적이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요구안을 제시해서 현장 조합원들에게 노동조건이 향상되게 하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하는데 병이 악화될 경우 회사도 피해가 심하다. 그런 걸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법으로만 접근하면 단체교섭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사 : 회원사가 경영규모나 근무형태가 다 다르다. 그러다보니 각자 고민이 많다. 자연히 가장 좋은 회사가 기준이 된다. 규모가 작고 어려운 회사도 가장 좋은 기준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다.

노 : 우리나라에서 감기 걸렸는데 출근하는 걸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외국은 이해 못한다. 감기는 주변사람에게 옮기는 건데도 임금이 깎이니 쉬면서 치료를 못한다. 잔업, 특근까지 날아가니 조퇴하기 어렵다. 잔업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싶었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요구한 것이다.

사 : 병원진료 목적은 본인 해당사항인가? (노 : 그렇다)

사 : 관계사 중에서도 일부는 조퇴를 임금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안하는 회사도 있다.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합의가 되면 악용할 수도 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안맞을 수도 있다. 사용자는 고민이 많이 된다. 병원도 늦게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아 퇴근 후에도 가능하다. 또 조퇴라면 몇 시간을 할지도 고민이다.

노 : 현장에서 병원 가느라 조퇴하는 경우가 많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합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정말 아프니 조퇴하지 안아픈데 조퇴하는 사람이 어디있나? 지금의 제도랑 똑같은 것이다. 단지, 임금을 공제할지 말지만 다르다. 오히려 아픈 사람이 임금 때문에 아픈데도 일하면서 병을 옮기면 더 안좋은 상황이 된다.

사 : 임금 인상 요구안을 표준생계비 고려해서 154,883원 요구했는데, 뉴스를 보면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회사가 23개쯤 된다. 자동차나 부품사도 평균 8,300만원 가량 된다. 각 회사마다 지불여력과 지역마다 직원들의 생활하는 수준

이 다 다르다. 임금요구안을 보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판단근거가 어디있는지?

노 : 생활임금은 한 노동자가 사회에서 이 정도 임금은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잡은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도 한 노동자가 알바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한 것이다. 전체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현재 받는 임금 수준에서 표준생계비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이정도 요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OECD 평균치를 고려해서 잡은 것이다.

사 : 물론 그 안에는 회사 지불능력이 포함되나?

노 : 그렇진 않다. 사용자들이 산별교섭 법제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를 요구하지만, 대기업 단가인하나 이런 것 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까지 완벽한 산별교섭이 안되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사용자들도 완벽한 산별체제로 가서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하면서 개선해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

사 : 산별노조 특징, 방향에 대해 언급하셨다. 여기 대충지부도 보면 차이가 크다. 작년 매출과 인원 대비 보시면, 이 회사는 어렵겠다는 게 금방 보인다. 대한이연만 해도 중소기업이다. 나름대로 고군분투 한다. 보쉬나 한온 같은 거대기업 따라가기 위해서 무한경쟁이다. 각 회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특성을 면밀히 보면서 이 회사는 정말 애쓰는구나 여긴 정말 여력이 안되는구나 라는 걸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노 : 노와 사의 해결방법이 다르다는 걸 느낀다. 회사 규모를 인정 안할 수는 없다. 문제는 해결방식이다. 단가인하가 오면 경영진은 현대차에 대한 문제제기 못한다. 노동자만 단가인하 문제라고 외치니 답이 안나온다. 사용자도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단가인하 맞았다고 얘기하고 노동조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한다. 금속노조가 대정부 요구안으로 산별교섭요구를 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산별교섭을 법제화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다. 그 교섭 내용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원하청 불공정거래도 산별교섭이 법제화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각 사별에 맞는 요구가 되면 좋겠지만, 산별노조로서 일괄적인 요구가 제시됐다. 그동안 각 사별 상황을 고려해서 임금안을 제시해왔다. 올해도 그렇게 고려해서 하시면 된다. 부족한 질의응답은 차기에 더 이어가자.

사회 : 5/4(목)은 여러 회사 사정상 교섭을 순연하고 차기 교섭은 5/11(목) 14시 보쉬에서 하겠다.